

미래전략연구원 미래한담

두 정치가 이야기

조성봉 (미래연 산업노동전략센터 연구위원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년 중 우연히 만난 *David & Winston*은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책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려 함께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읽는 시간이 연구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떠오릅니다.

이 책은 20세기 전반부를 풍미한 영국의 두 정치가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와 처칠(Winston Churchill)의 우정과 정치적 역정을 상세하게 소개한 책입니다. 2008년 발간되었고 로이드 조지의 손자인 로버트 로이드 조지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이드 조지와 처칠은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수상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로이드 조지는 진보세력의 수장이었고 처칠은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정치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때론 연합하고 때론 대적하였지만 대부분 서로 이 끌어주고 도와주며 영국이 20세기 전반부의 격랑을 파헤치며 나아가도록 이끈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처칠을 대표적인 영국의 보수 정치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치적 역정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처칠은 본래 보수당(Tory) 소속이었으나 1904년 진보당(Liberals)으로 당적을 바꿉니다. 그 이유는 보수당이 곡물의 자유로운 무역을 반대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고 진보당이 서민들을 위해서 값싸게 곡물을 수입하는 것을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었지요. 1909년 처칠은 통상장관으로서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로이드 조지를 도와 사회보험제도를 확립시키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이 같은 처칠의 행보는 보수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반기에 군수장관으로 활약한 로이드 조지는 처칠이 해군장관이 되도록 뒤에서 돕습니다. 처칠과 같은 보수적 성향의 군사전문 정치가를 적극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가던 1916년 연립내각의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는 성공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무리 짓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로이드 조지는 의회에서 격론을 벌여 당시 수상이었던 챔벌린의 사임을 이끌어 내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과 다른 진영인 처칠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여 수상이 되도록 돕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던 두 사람의 정치적 역정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들이 사소한 당리당략과 책략보다는 영국 국민과 국가가 나아갈 큰 방향을 더 고민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칠이 국민의 결속과 사회 안정을 위해 사회보험을 지지하였던 것이 그 예입니다. 20세기 초반 유럽 각국이 사회주의의 격랑에 휘말렸을 때 사회보험을 일찍 채택하였던 영국에서 사회주의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빈곤층을 꺼안았던 사회보험의 역할이 컸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보다는 강화를 주장하는 전통적 진보세력과는 달리 로이드 조지는 영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에 당파를 떠나 강력한 군사재무장과 전시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끈 인물입니다. 로이드 조지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처칠이 수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 책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처칠이 수상으로서 처음 의회에서 행한 그 유명한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연설 직후 로이드 조지가 그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장면입니다. 로이드 조지는 처칠이 수상이 된 것으로 인하여 처칠보다는 영국이 축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로이드 조지는 이 연설을 한 후에 처칠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칠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고 있다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적 책략가란 의미의 politician이라는 말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적 지도자란 의미의 statesman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안위나 나라의 앞날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우리 정치의 모습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지는 요즘, 두 위대한 정치가가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801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